

이코프

# 지금은 사고의 전환이 절실한 때.....

생산부 조 용 환 대리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 자기 업무를 억척스럽게 밀고가는 사나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아 완벽한 품질의 제품만을 생산키 위해 땀 흘려온 숨은 일꾼, 이것이 오늘 본지가 찾은 기린전자(주) 생산부 조용환 대리를 지칭해 주는 말이다.

조대리는 몇년간 동사에서 줄곧 모범직원으로 모범상을 수상하기도 한 자랑스런 기린전자(주)의 산업역군이기도 하다.

지난해 무역의 날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도 그의 야무진 노력과 일에 대한 신념이 열매를 맺은 것이기도 한데 "저 개인으로서는 영광입니다

만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제가 선정돼 부끄럽습니다"며 주위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는 표정이 역력해 보인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다. 최근에는 일본, 중국 등의 산업체를 견학하고 돌아온 조대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야겠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경우라면 하루 정해진 8시간만 일하면 퇴근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들은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다"고

더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들이 회사에서 받는 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일해 주려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고와 비교해 볼 때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난 사고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체 근로자들의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한다.

회사에 대한 보답을 근면과 일로 대신해 주는 그들에게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우리 국민들의 사기가 몇년 동안 시들해져 왔지만 「뭔가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임을 일깨워 주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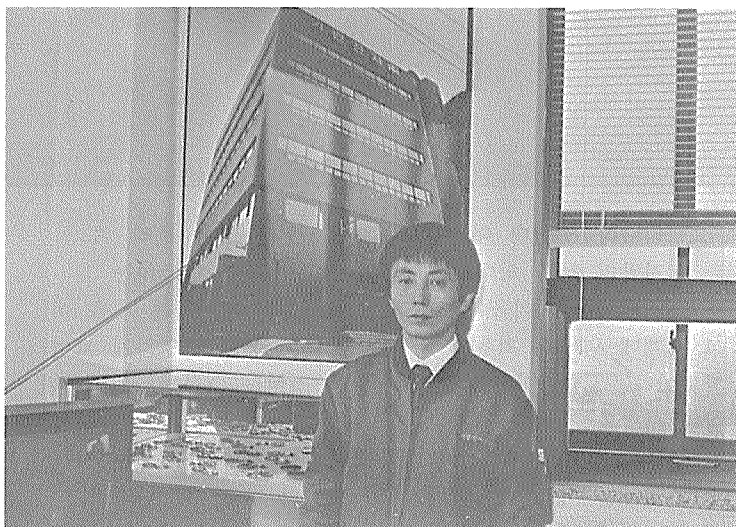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조대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개인 발전은 물론 회사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에 대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다.

"우리 회사는 노력하는 만큼 개인의 발전과 성과를 주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현실에 안주하고 야망과 욕망이 제한된 상태에서 좌절보다는 진취적인 노력과 앞으로의 진로와 야망이 제시되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야망이 보입니다"며 열심히 뛰는 사람임을 또한 알게 해 준다.

한편 과묵하면서도 맑은 업무에 충실한 30대 유부남 아저씨로 통하는 조대리는 같은 부서 아가씨들에게도 꽤 인기 있는 사람이다.

결혼하게 된 동기를 묻자 흥조면 얼굴로 "사실은 '88년도에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바로 앞에 앉아 근무를 했었다고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지냈는데 어느날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하는 얘기가 대뜸 사랑을 고백하더라는 것이다."

그후 장남이다 보니까 집에 소개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던



중 할머니께서 흔쾌히 승락해 주시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3년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고, 사내커플, 거의 환상적인 만남임을 세삼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산을 무척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가끔 산행을 함께 다니기도 한다는 조대리 배낭 둘러메고 산행을 할 때는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갖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단다. 무슨 일이든 두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면 가능한 함께 한다는 이들 부부.

지금은 같은 직장은 아니지만 아내가 전자회사에 직장을 갖고 있어 이러한 기회가 쉽지가 않다고 한다. 앞으로는 보다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매사에 충실하고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위해 가족과 함께 시

간을 보내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는 조대리는 하지만 어찌다 가족 모두 외식할 기회가 있으면 조대리 부부는 다른 사람보다도 썩 메뉴를 선택할 정도로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의 생활환경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은 그의 성실한 단면인것 같다.

조대리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자는 것"이 생활신조이기도 한 그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일하는 후배들에게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단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맞이해 주는 4살된 아이가 그렇게도 귀여울 수가 없다는 조대리.

임신년 새해에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계획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 매의 꿈을 피우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본다.